OLÉ OLÉ - YANGYANG

양양소식

www.yangyang.go.kr

2013년 10월호

제222호 · 발행일 : 2013. 10. 30(수) · 발행인 : 양양군수 · 편집인 :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033)670-2223 / Fax(033)670-2276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이정철

오색단풍 갈아입은 주전골 가을의 양양비경 물들이다

굽이굽이 오색단풍 곱게 물든 주전골의 가을정취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임을 전하고 있다.

태고적 신비 고스란히 간직한 주전골의 풍성한 가을이야기가 양양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한다.

가을의 풍성함이 주전골을 타고 전해 내려오듯 양양의 '희망단풍'도 순풍을 달고 곱게 물들어 가기를...

지 면 안 내

● 2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재추진 총력전
● 3면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4면 4년간 도시민 364명 양양 이주
● 5면 중국 상하이 정기노선 안정궤도 올라
● 6면 "양양송이축제 글로벌 체험축제 진가 발휘"
● 7면 "향토문화 발굴 창달 혁혁한 공로
● 8면 양양한우 셀프식당 4곳 운영
● 9면 제9회 강원자활한마당 박람회 성료
● 10면 정암해변 해안초소 이전된다
● 11면 전통시장 차 없는 거리 만든다
● 12면 생활정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재도전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재추진 총력전

우리군, 대책회의 갖고 대응…7개 노선 검토 추진

항의방문 · 규탄대회 개최

우리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부결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대응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상철 양양군수와 박천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색삭도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 및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김호열 미래전략과장의 보고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오색삭도의 추진경위를 설명하고 지난달 25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발표한 부결 내용에 민간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만 일방적으로 반영되고 공원위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이달 중 강원도와 오색삭도 재검토 요구 및 노선 선정 재추진 방향 등 향후 추진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색삭도추진위원회나 지역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양양군청과 광화문, 환경부 등지에서 환경부의 삭도 시범사업 부결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강원도와 우리군, 군의회, 이장협의회,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환경부 규탄 성명서를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꾸려진 대표단이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 등을 항의 방문해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일방적 공원위원회 개최 등 이번 결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확산시키는 활동에 주력할 계획인 가운데 오색삭도 시범지역 선정에 대한 규탄의 글을 현수막으로 제작해 게첨하고 언론 및 인터넷을 활용해 대외적으로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와 병행해 오색삭도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군민 공청회 및 주민들의 전폭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정상철 양양군수가 대군민 성명서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오색삭도 재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구성, 용역 추진 등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오색삭도 대책회의에서 양양군은 이번에 부결된 오색→관모능선을 비롯해 △오색→주전골 △오색→끝청 △오색→중청대피소 △오색→오색령휴게소 △백암골→관모능선 △장승리→관모산 등 7개 노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오색삭도의 재추진 입장을 확고하게 천명한 가운데 환경부의 모순된 결정논리를 분석해 오색삭도 전담팀 개편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역사회는 이와 별도로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들이 중심이 돼 재추진에 따른 여론수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과 보조를 맞춰 재추진에 전폭적인 힘을 보태고 나섰다.

정상철 군수는 "우리군이 1995년부터 시작한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3만 군민들의 숙명과도 같은 숙원사업이므로 지역 전체가 하나로 뭉쳐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문의 미래전략과 오색케이블카담당 670-2530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본격 추진

우리군-강원도 오는 17일 MOU체결

우리군이 지난 17일 강원도교육청과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한 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정상철 군수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이날 MOU를 맺고 향후 지원근거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지역특성에 따라 교육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체제강화를 통한 작은 학교의 맞춤형 교육내실화 및 유지발전을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군은 도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지원근거 마련 및 교육협력체제 구축, 학교특성에 적합한 통합여건 개선, 타 지역 유입학생 등의 근거리 통학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특성화 프로그램 및 시설환경 개선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 공동 통학구역 설정 및 학구광역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제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우리군은 그동안 지역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과 교육경비 및 입사생과 장학생 선발 등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 초 출범한 장학재단의 경우, 조성액이 현재 34억원에 이르는 등 2020년까지 100억원 달성이 순조롭게 진행돼 지역학생들의 도시권 이탈현상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재육성프로그램은 매년 5억원을 투입해 전문교육업체 위탁을 통한 지역의 중고생(120명)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력제고 등 효과가 높아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열악한 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해 읍면별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19개 학교에 46억여원을 지원해 다목적실 신축을 완료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자치행정과 대외협력담당 670-2451

면소재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현북 · 강현면 등 4개 사업에 국비 108억 확보

우리군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원활한 국비확보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군은 내년도 광특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에 현북면과 강현면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비롯해 현남면 창의아이디어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4개 사업이 확정돼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비 108억원 등 총 155억원이 신규로 투입될 계획인 가운데 농림식품부는 군이 신청한 신규사업에 대해 그동안 사업성 검토와 현지실사 통해 최종 4개 사업을 확정했다.

현북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67억원(국비 47억원)이 투입돼 하광정리, 중광정리, 기사문리 일원(642.2ha)에 대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다목적회관 조성, 면소재지~중광정리 연결도로 개설, 게이트볼장 신축, 생태공원조성, 어구보수작업장 등 기초생활기반과 지역 경관개선, 소득기반 사업 등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또 강현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2017년까지 67억원이 투입되며, 정암2리와 물치리, 강선리 일원(449.1ha)에 대해 마을연결도로, 생태트레킹 조성, 가로경관조성 및 담장정비사업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지정된 현남면 하월천리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해 소득기반사업으로 백선유 치유교육관, 토종허브 찜질체험방, 건강측정 및 물리치료실 등 치유프로그램이 추진되며, 귀촌유도 및 숲 치유교육, 치유 컨설팅 등의 교육사업도 병행 추진될 계획이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내년 5천만원을 투입해 마을주민 교육, 선진지 견학, 마을사업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며,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하게 될 마을에 집중함으로써 교육이 실제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민 기획감사실장은 "올해 각종 공모사업들을 기획부서로 이관해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사업 간의 연계와 선정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비비중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해 보다 많은 국비확보로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의 정 소 식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지난 18일 공포 내년 4월18일부터 본격 시행

우리군의회는 매년 11월 25일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서 작성 및 감사자료 제출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시 · 도의 위임사무 모두 그 대상이 된다.

김일수 의장은 6대 양양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군정 추진에 주민의견 반영 여부, 적정한 예산집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감사를 통해 군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최홍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 의원들이 실시하며,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여 양양군정 업무전반에 대한 일문일답식 감사 질의와 현지 확인 및 자료제출 형식으로 진행된다.

우리군의회가 의원 발의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8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에 따른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의 지정 및 금연구역 표시, 흡연장소의 설치 및 금연교육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금연구역의 지정은 도시공원, 학교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에 대해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역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해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해 해당구역 내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한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민의 금연을 위해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접 금연클리닉을 설치해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제공 등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금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되,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8일 공포돼 내년 2014년 4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 등에 대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지정이 가능해지고 금연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외계층 '맞춤형 우편·민원서비스' 추진

우리군-양양우체국 협약체결…집배원들 징검다리 역할

우리군이 고령화에 따른 소외계층 등 우편서비스 약자들을 위해 양양우체국과 '맞춤형 민원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불편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군수실에서 정상철 군수와 임근순 양양우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민원서비스'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이번 협약은 우리군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지속적인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선정하며 우체국은 집배원들을 징검다리로 투입,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결식이나 건강상태 등을 살펴 군에 전달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거동불편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서류발급 후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발송하면 우체국에서는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한 뒤 서명 및 교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우리군과 우체국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 선정 규모를 비롯해 소외계층 생활상태 제보 및 우편물 발송 횟수, 발송내용,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대상 민원사무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우편 및 민원서비스 협약에 따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우편 및 행정민원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우리군이 그동안 각종 민원에서 소외되거나 인지하지 못해 불합리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우편 및 민원서류 약자를 배려한 공공정책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이 가장 소외된 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해 추진하는 것 같아 보기 좋다"며 "작지만 사소한 것부터 챙기는 정책이 바로 위민행정이다"고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분야별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한 발 앞선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670-2241

여성결혼이민자 고국방문 자리매김

우리군, 지난 2001년 추진 총 70가정 222명 지원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고국방문 사업인 친정나들이 프로그램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1년부터 친정보내기 사업을 통해 총 70가정 222명의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들이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한국생활에 정착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군비 1천8백만원을 들여 생활형편이 어려워 결혼 후 친정을 다녀오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 5가정 21명을 선정해 고국을 방문하도록 주선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2006년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만흐속카이 씨가 배우자 및 아이들과 함께 친정을 방문한데 이어 4월에는 2008년 필리핀에서 온 마우린 씨가, 8월에는 2007년 필리핀에서 온 권재인 매크투리스 씨가 가족과 함께 친정나들이를 다녀왔다.

오는 11월에 4번째로 베트남 출신인 레티귀앤짱 씨가, 그 후에는 2006년 베트남에서 시집온 마이티찬타오 씨가 가족과 함께 고국을 찾게 된다.

현재 양양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중국(38명), 일본(18명), 필리핀(31명), 베트남(36명), 캄보디아(10명), 몽골(1명), 키르기스스탄(1명), 캐나다(1명) 등 8개국 13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군은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가 늘어나자,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를 비롯해 올해부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여성결혼이민자 나라별 모임 지원, 이웃사촌 결연지원,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회관 교육교실, 어린이 체험학습 등에 다문화가정이 참여할 경우, 무료로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 670-2370

4년간 도시민 364명 양양 이주

우리군 유치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활성화

우리군이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지원에 나선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69가구 364명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 지난 4년간 '귀농귀촌 고향마을' 조성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도시민 유치지원센터와 도시민 유치 T/F팀을 개설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 정책과 귀농귀촌인 지원을 위한 one-stop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조례를 제정해 5가구 이상 이주해 마을을 구성한 경우에는 생활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1회성 이벤트를 지양하는 대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귀농귀촌 체험학교와 현장교육, 도시민 재능기부를 통해 마을주민들과 공동체 형성 및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으로 이주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군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주 희망자 1,500여명과 관내 빈집 및 농지정보, 일자리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그동안 주택지원.수리(3가구), 농업시설 및 농자재 지원(5가구), 농업창업 및 현장실습(5가구)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그동안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귀농귀촌협의회도 발족돼 회원간 품앗이,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멘토링 운영활동이 활발히 추진되는 등 귀농귀촌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군은 그동안의 도시민 유치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주한 가구 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40%에 불과하고, 젊은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와 주택부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예산의 과다소요, 계속적인 지가 상승 등은 향후 귀농귀촌의 저해요인으로 판단하고, 신규택지 및 주택단지 개발과 제2그린농공단지 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업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사를 짓지 않는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해 1차산업인 농업활동보다는 가공, 유통 마케팅 등 도시에서의 재능을 살리는 2·3차 산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및 매뉴얼 개발 등 다양화에 나설 방침이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담당 670-2336

환경경영체제 효과적 실행

전력 · 용수 · 하수 양호…8개 사항 개선 권고

우리군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ISO 환경경영체제(14001)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일 KSA 표준인증협회로부터 심사대상 표준요구사항과 계획된 경영시스템 효과적 이행사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 친환경 행정경영을 고려한 군정업무계획 수행과 환경영향 최소화 목표 수립달성, 환경보전의 길잡이 역할, 환경보전 홍보와 활동 등 부서별 47개 단위목표달성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경영시스템의 주요한 성과지표별 변화추이를 보면, 군청사의 전력사용량은 2011년 92만8,8369(kw/h)에서 2012년 91만6,120(kw/h)으로 줄었으며, 용수사용량은 2011년 9,750톤에서 2012년 6,369톤으로, 하수처리량도 2011년 6,951톤에서 2012년 6,526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부심사를 통해 자체 개선사항의 자체 시정을 실시했고, 자유게시판과 자료실 등을 활용해 내부의 의사소통과 함께 군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민원접수 및 후속조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각종 개발사업 실행 시 환경과 관련된 추진문제의 도출.추진과 하천정비사업 등의 설명회 개최 시 사례집을 발간해 차기 설명회시 활용하는 방안, 향후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등의 시설물 건립 시 친환경 요소, 에너지 절약, 재활용 소재 사용 등 8개항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받았다.

군은 이에 따라 부서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환경목표 및 업무계획을 환경경영시스템과 연계등록 모니터링 하는 한편 향후 환경경영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670-2180

제1회 우리군 사회복지대회 성료

우리군사회복지협회(회장 홍윤표)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 송이조각공원에서 관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사회복지대회를 열고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올해 처음 연 이날 사회복지대회는 종사자들이 분야별로 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체육대회를 갖고 화합을 도모했다.

대학생 문화활동 효과 내년 확대

우리군, '1가 1손 맺기' 등 프로그램 다양화

우리군은 올해 처음 실시한 대학생 문화활동이 지역홍보에 효과가 크다고 보고 내년부터 참여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에 마련한 문화활동을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에 알린 데 이어 행사의 전 과정을 담은 기록물을 제작,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참여한 대학생들은 국내 주요행사 및 대학축제 시 사진전을 개최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도 거양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행사규모가 작아 여러 마을과의 연계 및 출향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규모 있는 행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농산촌마을과 숙박 · 체험 · 전통문화 등으로 구분해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 동안 5일간 2회에 걸쳐 2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대폭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SNS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으로 미래고객인 대학생들의 관심과 재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 1회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청행사(문활페스티벌)를 개최하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등 양양군민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가 1손 맺기'와 문화공연, 전통문화계승, 마을 이야기 발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마을과의 연계를 활성화시켜 끈끈한 인연고리를 맺어나갈 예정이다.

군은 지난 8월 과거 70~90년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펼쳐졌던 농활을 시대흐름에 맞게 변화시킨 문화활동을 현북면 원일전리에서 열어 농촌의 현실을 알리고 지역을 홍보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여성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우리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9개 기업과 1촌 협약

우리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관내 9개 기업과 여성친화기업 1촌 협약식을 맺고 상호 동반성장에 나서기로 했다.

새일센터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주)해송KNS, 북청산업, 정다운 마을, 낙산요양원, 디모테오꿈마을요양원, 속초양양축협, 양양농협, 새마을금고, 양양정형외과 등 9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 협조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새일센터는 여성친화기업에 맞춤형 근로자를 제공하고 기업들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협약을 맺은 여성친화기업들은 새일센터가 제공하는 여성인력 채용을 비롯해 여성근로자가 승진이나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양성평등을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새일센터의 업무를 자세하게 소개한 한정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향토기업과 함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취업 후 직장적응을 도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새일센터 670-2357

민족통일 기원대회 및 추모행사 민족통일양양군협의회는 지난 1일 오전 11시 현북면 잔교리 38휴게소 상석 앞에서 민족통일 기원대회 및 호국영령 추모행사를 갖고 조국을 위해 산화한 이들의 넋을 위로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문공항 양양국제공항이 뜬다

중국 상하이 정기노선 안정궤도 올라

취항 한 달간 16편 왕복 1,837명 탑승

양양국제공항의 중국 상하이 정기노선이 취항 한 달간 1,837명의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며 안정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군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양양국제공항에서 첫 취항한 상하이 정기노선이 총 16편 왕복해 1,837명의 탑승객들을 나르며 공항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전세기 노선을 포함해 지난 1월부터 총 1만5천여명이 이용했으며, 내국인들은 정기노선 취항 이후 141명이 아웃바운드에 나섰다.

상하이 정기노선이 탑승률 80%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운영에 나서면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취항을 위해서는 내국인들의 아웃바운드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하이 정기노선에는 내국인들의 아웃바운드를 위해 32석의 좌석이 배정돼 있지만 매회 10명 안팎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교차관광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해외여행 과소비로 인해 외화반출이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관광수지 균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아웃바운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양국제공항에서 운항되는 중국 상하이 노선도 현재의 인-아웃바운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중국 상하이 노선이 취항하면서 내국인들의 아웃바운드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지만, 상하이 물가가 비싼데다, 국내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관광상품 개발도 미진해 상하이 여행에 대한 욕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에 따라 중국 상하이 노선의 내국인 아웃바운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여행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상품개발에 주력할 예정인 가운데 노선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2일 6회 운항에 1천여명의 탑승객을 실어 나르고 중단된 연길노선은 관광객을 포함해 꾸준한 수요를 지니고 있어 경쟁력이 큰 만큼 강원도는 내년 초에 다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행업계는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 활성화가 상하이 노선을 통해 가능해지고 있는 만큼 연길노선도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국제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내선 제주노선도 하루빨리 개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군은 양양국제공항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문공항으로서 활성화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제공항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면밀한 준비에 들어갔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강원도, 유력 저가항공 '진에어'와 손잡고

양양국제공항서 중국 · 제주노선 개설 나선다

강원도가 유력 저가항공사인 '진에어'와 손을 잡고 양양국제공항의 안정적인 국제선 및 국내선 운항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도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최문순 지사와 마원 진에어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국제공항에서 중국과 제주도 등 국내외를 잇는 노선개설에 나서기로 1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진에어는 오는 12월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중국을 축으로 하는 국제선 노선개설과 국내선 제주노선 개설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와 진에어는 중국 등 취항예정 지역 검토에 들어갔다.

도는 진에어의 양양국제공항 취항에 맞춰 공항사용료 일부 할인과 24시간 공항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에 들어갔으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72시간 체류도 조만간 가시화될 예정이다.

도는 진에어와 11월까지 국제선과 국내선 제주노선 개설 등 세부사항을 협의한 뒤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준석 공항지원담당관은 "진에어와의 협약으로 앞으로 중국 등 국제선 전세기 3개 노선과 제주노선의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대한항공에서 100% 출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비용항공사로서 지난 2008년 창립해 그 해 김포~제주노선에 취항한데 이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와 저가항공사로는 처음으로 미국령인 괌에 취항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남대천 향토어종 자원량 회복 나서기로

칠성장어 등 희귀종 서식…재첩폐사 공식 확인

최근까지 남대천에서 자취를 감췄던 칠성장어 등 희귀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반면 재첩도 일부 폐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돼 우리군이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국내 최대의 연어회귀천인 남대천의 자원조사 및 증대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강원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용역에서는 남대천과 각 지류에서 채집된 담수어류에 대해 군집밀도 분석, 성장도 및 비만도, 과거 서식상태 비교 및 자원량 변화, 수질특성 등을 분석한 결과, 총 21과 46종 8,965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멸종위기 어류인 칠성장어, 가시고기, 한둑중개 등 희귀어류 3종이 발견됐으며, 우리나라 고유종인 금강모치와 쉬리, 참갈겨니, 미유기, 자가사리, 꺽지 등 6종이 전체 개체수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멸, 쉬리, 참마자, 미끈망둑, 꼬치고기 등은 지난 1996년과 2006년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어종이며, 칠성장어도 지난 2006년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일부가 아직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희귀어종의 자원량 증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은어의 월별 성장도와 비만도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첩의 경우에는 하구 쪽에 사패가 다소 발견돼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산천어, 꺽지, 잉어, 붕어 등은 자원량이 증가한 반면, 꾹저구, 미유기, 은어, 피라미, 버들개 등 일부 향토어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이날 보고회에서 남대천 수계에 설치된 62개의 보가 생태흐름을 가로막는데다, 양수발전소로 인해 향토어류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어류의 산란장과 먹이공급원이 감소한 점 등을 향토어종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남대천 수질의 이화학적 특성변화로 연어과의 회귀율이 감소하고 재첩폐사, 성장률 감소의 원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류의 상?하류 이동이 자유로운 생태어도보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에 따라 이번 보고회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어족자원 회복방안과 어류의 서식, 산란 생장의 방해요인을 분석해 체계적인 자원량 증대에 나설 방침이다.

▶문의 해양수산과 자원개발담당 670-2744

우리군 유수율 높이기 총력전

44곳 누수차단 39억원 절감효과 거둬

우리군이 지속적으로 새는 상수도의 관리 체계화를 위해 유수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사업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4곳의 누수 지점을 찾아 복구에 나선 결과 5,568톤(1일)의 누수를 차단해 3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누수탐사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고 상수도 관망 블록화시스템 구축, 관로 정비를 통해 유수율을 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군은 양양과 오색, 남애 등 3개 정수장을 통해 1일 2만2,500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화상천을 수원으로 하는 남애정수장의 경우에는 여름 성수기 등 피서객 증가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용으로만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군의 상수도 유수율은 66.5%로 2011년 65.3%에 비해 1.2%증가했으며, 이 같은 수치는 도내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전국평균(83%)을 크게 밑돈다.

이는 근본적인 대책인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지자체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인데다, 대부분 산지로 관로매설이 불리하고 지형고저차로 적정수압 유지에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관내에는 도수관, 송수관, 급.배수관 등 총 295.6km의 관로가 설치된 가운데 이중 10년 이상 된 관로가 50%에 달하고 20년 이상 된 관로도 7.6%로 나타나, 우리군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교체가 시급한 1.6km구간에 대해 연차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관내 3개 수도공무소와 합동으로 누수탐사반을 적극 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누수탐사인력과 현대식 누수탐사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2회 이상 누수발견 관로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 등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원현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관망 블록화시스템 구축을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상수도사업소 운영담당 670-2567

“양양송이축제 글로벌 체험축제 진가 발휘”

버섯 다양화 운영 돋보여…송이산업화 견인차

“양양송이 정말로 진귀하네요.”

2013양양송이축제가 글로벌 체험축제를 입증하며 깊어가는 가을추억을 선사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열린 올해 양양송이축제는 현장체험 중심의 다양한 이벤트로 축제기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2일 오전 10시 산신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송이축제는 723명이 참여한 내국인들의 송이보물찾기와 송천 떡마을, 동호리 별치후리기 등 시골체험, 송이밸리 버섯체험, 낙산배 빨리 먹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재미를 더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열린 개막식과 축하공연도 다양한 이벤트로 즐거움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이어 3일에도 현장체험 중심의 이벤트가 진행된 가운데 38선 돌파 양양수복기념 화합한마당, 문화예술제가 열려 이색추억을 선사했으며, 4일에는 탁장사 대회, 송이콘서트, 5일에는 감자콘서트, 6일에는 청소년 댄스공연 등 매일 색다른 이벤트를 가미해 골라보는 재미를 더했다.

올해 양양송이축제는 송이작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현장채취체험과 내국인 송이보물찾기 등 체험행사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인기를 끌었으며, 부족한 양양송이를 표고버섯과 해송이 버섯 등 다른 버섯으로 대체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돋보였다는 분석이다.

매년 양양송이의 생산량에 따라 송이축제의 희비도 엇갈리는 불안감을 올해는 다른 버섯을 활용한 이벤트로 해소하며 안정적인 운영에 나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송이축제가 생송이의 먹거리에만 머물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송이밥 시식을 비롯해 송이차 시음, 송이빵, 송이만두 시식, 송이가공식품시식 등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송이산업화에도 견인차 역할을 해냈으며, 송이 페이스페인팅, 송이볼링, 송이 제기차기, 송이 장승깎기, 송이포토존, 송이스탬프랠리, 송이판화찍기 등 40여개의 이벤트가 송이테마로 열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 양양송이축제는 글로벌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축제에는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사절단 7명이 방문해 한·중간 대표적인 송이고장간의 교류 물꼬를 텄으며, 일본 롯카쇼촌 13명과 다이센정 7명 등 20명의 일본인 사절단도 양양송이축제장을 찾아 국제교류의 폭을 넓혔다.

더욱이 송이축제를 열고 있는 중국 용정시 사절단은 송이축제장을 둘러보며 송이축제간 교류를 모색한 가운데 최종익 양양군 우수제조업협회장이 이들을 안내하며 특산품 무역거래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경제활성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우섭 양양송이축제위원장은 “올해 양양송이축제는 기존의 특산물축제의 개념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데다, 국제축제 교류의 장도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함으로써 글로벌 축제로의 안착에 성공했다”며 “이제는 송이를 비롯한 버섯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위해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670-2723

“가을에 만난 양양연어 최고예요”

2013양양연어축제 성료…맨손잡기체험 ‘으뜸’

2013 양양연어축제가 반짝 찾아온 가을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태체험축제의 진가를 선사했다.

‘연어야! 양양에서 만나자’라는 주제로 지난 18~20일 3일간 연어의 모천인 남대천에서 열린 연어축제에는 가을의 전령사, 연어를 만나기 위한 체험객들로 붐볐다.

이번 연어축제는 내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남대천에서 펼쳐진 맨손잡기 체험에 참가해 펄떡펄떡 뛰는 남대천 연어를 잡으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다.

3일간 개최된 연어축제는 갑자기 찾아온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아 맨손잡기체험을 비롯해 연어뜨기체험, 양양연어OX퀴즈, 자전거 천천히 타기대회, 연어요리 맛체험 행사 등 우리군이 마련한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즐겼다.

또 가을의 별미로 통하는 연어의 다양한 요리도 선보여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으며, 참가자들은 직접 잡은 연어를 즉석 연어 셀프구이장에서 가족과 함께 구워먹는 등 특별한 가을추억을 쌓았다.

군은 올해 연어축제를 위해 동해안의 주요 항포구에서 갓 잡은 싱싱한 연어를 공급해 맨손잡기체험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한 가운데 사전에 연어의 방사능오염 검사를 실시해 참가자들에게 알리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연어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연어축제는 새롭게 마련한 야외 ‘연어와 사진찍기’ 세트장과 토종어류까지 확대한 연어주제관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남대천 연어 방사능오염 ‘안전’

지난 2일 대진서 오염도 측정 ‘적합’ 판정

우리군이 연어축제를 앞두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어의 방사능 오염 여부 결과 먹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은 지난 2일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에서 연안에서 잡힌 연어를 채집해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세슘(134Cs + 137Cs) 및 요오드(131I) 두 가지 모두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군이 연어축제 맨손잡기에 사용한 동해안의 연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에도 10월18일~11월29일까지 7차례에 걸쳐 연어사업소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강릉사무소에 의뢰해 실시한 연어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군은 이와 관련, 최근 연어축제를 앞두고 일부 맨손잡기 참가자들이 방사능 오염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잇따르자, 이날 실시한 결과를 자세하게 안내하는 등 순탄하게 진행해 성공리에 연어축제를 마쳤다.

특히 본격적인 연어소상이 이뤄지는 이달부터 연어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남대천 연어의 안전성 확보에 나서는 등 연어자원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670-2723

손양면 학포리에 농작업 안전장비 전달

우리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30일 손양면 학포리 마을회관에서 정상철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마을 선정에 따른 장비를 전달했다.

"향토문화 발굴 창달 혁혁한 공로

양양문화원 2013 대한민국문화원상 수상

양양문화원이 그동안 묻혀져 있던 향토문화의 활발한 조사 및 발굴에 혁혁한 공을 세워 지난 10일 한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2013 대한민국문화원상'을 수상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10월 10일 문화원의 날을 맞아 양동창(사진) 문화원장을 중심으로 한 양양문화원이 잊혀져 가던 소중한 향토문화를 발굴해 역사를 바로 잡고 자존감을 되찾는 등 전국 지방문화원 중 가장 돋보이는 활동을 펼쳤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양양문화원의 대한민국문화원상 수상에는 지난 2006년 취임한 양동창 원장의 한결같은 향토문화 사랑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온 애틋한 애민정신이 원동력이 됐다.

양 원장은 취임 후 향토문화 발굴 기반을 닦은 뒤 2008년 향토문화의 올바른 전승과 잘못 전해져 내려오는 향토역사를 발굴해 당당한 양양군의 역사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를 처음 개설했다.

향토사학자 7명으로 구성된 향토사연구소는 양 원장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동해신묘의 역사적 고찰과 이해'라는 논문을 발표해 지난 2012년 제27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향토사 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향토문화 역사 발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지난 2013년에는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이라는 논문을 후속으로 발표해 제23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활발한 연구 성과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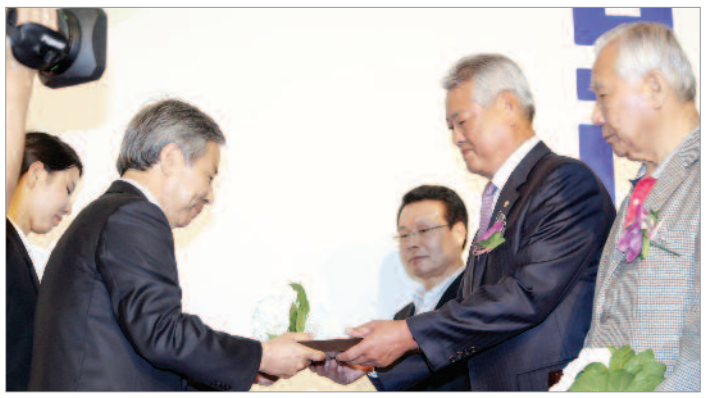
특히 양 원장은 지난 69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강원도청 근무와 양양군 부군수 등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온 풍부한 경륜을 살려 문화원을 이끌며 양양군 향토문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전통예향의 고장답게 군민들의 자존감을 중심에 내세우며 잘못된 역사 바로 잡기와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맞서 올바른 향토역사 세우기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왔다.

그의 향토문화 및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쉼 없이 이어져 최근에는 '중국 길림성 양양촌의 이주생활사'를 비롯해 '양양철광산의 문화사' 등 후손들에게 전해줄 소중한 역사를 발굴하는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역사란 무릇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기 때문에 한점의 거짓도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양양의 향토문화와 역사 발굴에 헌신해주신 연구원들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군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 쉬는 향토문화가 진정 살아있는 지역문화라는 신념을 갖고 향토문화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는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은 내년 3월 퇴임을 앞두고도 향토문화 창달 작업에 여념이 없다.



"생필품 전통시장이 더 저렴해요"

우리군 대형마트 가격비교 공지…알뜰 장보기 효과

관내 주요 생필품의 시장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역생산 농수산물에 대해 전통시장과 중대형 마트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쌀과 콩, 대파, 양파, 콩나물, 취청오이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마트보다 전통시장의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이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가격은 콩(국산, 백태 750g)은 1,800원, 대파(1kg) 431원, 콩나물(400g) 150원, 취청오이(10개) 1,250원, 풋고추(100g) 261원, 마늘(깐마늘 1kg) 2,650원이 더 싼 것으로 파악됐다.

또 냉동오징어(10마리)는 5,000원, 국산 자반고등어(1손, 30cm)는 500원, 국산 갈치(1마리 60cm)는 1,500원이 더 쌌다.

특히 가격편차가 심한 품목으로는 쇠고기(거세한우 500g, 등심구이)의 경우, 최고 3만7,500원, 최저 2만7,450원으로 1만500원의 차이가 있었으며, 생삼겹살(500g)도 8,950원과 7,250원으로 1,700원, 마늘(중품, 1kg)은 1만900원과 6,630원으로 4,270원의 차이가 났다. 제조사가 같은 공산품의 경우에도(오뚜기 국수 900g) 최고 2,650원, 최저 1,950원으로 7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돼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우리군이 매주 1회 대형마트의 가격동향을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전통시장과 주요 품목을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군은 이와 관련, 관내 중대형마트별 가격동향을 공개하면서 장보기 전에 구입 품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활동 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우리군 돼지고급육 최우수 수상

손양면 삽존리 유정학 씨 제39회 강원축산경진대회서

제39회 강원축산경진대회에서 우리군 대표로 참가한 농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축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군은 지난 17~18일까지 춘천에서 열린 강원축산경진대회 34개 종목 중 한우와 돼지 고급육품평회와 한우암소경진대회 등 5개 종목에 출전해 손양면 삽존리 유정학 농가가 돼지고급육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특히 유정학 농가는 지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손양면 삽존리에서 키우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품질 생산에 성공,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군은 이번 대회에 한우고급육 부문에 서면 노화리 이호민 농가와 현북면 말곡리 김몽기 농가가, 한우암소경진대회에는 강현면 강선리 이달형·이은숙 농가, 서면 상평리 전상수 농가가 출품했으며, 돼지 고급육 부문에는 손양면 삽존리 유정학·김재기 · 강태구 농가가 참가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축산위생담당 670-2705

우리군 환경미화원관 간담회 가져

애로사항 청취 및 안전사고예방 등 의견수렴

우리군이 지난 7~10일까지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과의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청취 및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박경열 환경관리과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근무규정 및 안전교육, 환경미화원의 청소업무수행과 근무자세, 업무를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군은 앞으로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환경행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청소업무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줄여나가며 환경미화원의 긍지도 북돋아 줄 계획이다.

▶문의 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670-2183

나라사랑 보금자리 두 번째 선정

양양읍 조산리 김봉수 씨 주택 마련

육군 8군단(군단장 김유근)이 6 · 25 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두 번째로 양양읍 조산리 김봉수 씨를 선정해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에는 김유근 군단장을 비롯해 정상철 군수, 정준화 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지역에서 각계의 지원이 이어져 훈훈함을 더했다

인재육성 100년을 설계한다

■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10월 장학금 기탁현황

번호	기탁일	성 명	기탁금(원)
1	9. 2	손우회(손양면기관단체모임)	2,000,000
2	9. 3	이건형	1,000,000
3	9. 4	청송회(서면기관단체모임)	2,000,000
4	9. 5	서면 수리마을회	1,000,000
5	9. 9	산림농지과 고교연담당	1,000,000
6	9.12	재직농협 양양고동문회	2,000,000
7	9.16	이원자(양양군보건소)	1,000,000
8	9.23	고명종(양양고 교감)	1,000,000
9	9. 3	양양군사회복지협의회	2,000,000
10	10. 1	양양군여성단체협의회	1,000,000
11	10.14	조규백(전해양수산과장)	1,000,000
12	10.14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태형	5,000,000
13	10.22	양양군이장연합회	1,000,000
14	10.24	고장환	1,000,000

서면 청송회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서면 기관·단체장모임인 청송회는 지난 4일 윤종덕 면장과 이상우 서면이장협의회장, 탁상기 서면번영회장, 박재희 서면여성의용소방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철 군수를 찾아 인재육성장학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

재직농협 양양고동문회 장학금 기탁

재직농협 양양고동문회(회장 김중열)는 지난 12일 오전 9시30분 군수실에서 정상철 군수에게 인재육성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양양한우 셀프식당 4곳 운영

먹거리 명소화 추진…1인당 6천원 상차림 제공

우리군이 고품질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양양한우의 음식 대중화를 위해 한우 셀프식당 운영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송이버섯과 궁합이 잘 맞는 한우의 소비를 확대하고 이를 전통시장 먹거리로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전통시장과 가까운 4개 업소를 지정,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양양한우 셀프식당은 소비자가 관내의 모든 정육점에서 양양한우를 구매해 1인당 6,000원의 저렴한 상차림 비용(주류, 음료, 급식 등 별도)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6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과 200m이내에 소재한 동거동락, 송화정, 송림생고기, 영심이 쌈밥 등 4개 업소를 선정하고 추첨에 따라 가맹점 순위도 정했다.

군은 양양한우 셀프식당 운영을 위해 전국적인 모범 셀프식당을 견학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운영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식당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이달 말 개소식 및 시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셀프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5천만원(국비)를 투입해 옥외간판과 차림표, 데크, 입구인테리어, 기타 집기류 등을 구입 지원하며,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정기적인 한우고기 세일행사로 대중적인 먹거리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한우와 가장 궁합이 맞는 지역 최고의 특산품인 양양송이와의 연계로 상호간 브랜드를 높여나가는 동시에 향후 선정할 양양 8미(味)를 활용한 전문 음식점의 하나로 육성, 음식 마케팅을 통한 먹거리 명소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양한우의 경우, 그동안 전국한우경진대회에서 다수 입상을 받은 등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음식점과 연계가 이뤄지지 못한데다, 양양한우의 사육기반이 6,000두 가량으로 정육식당 등 전문점을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양양군이 이번에 시장주변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양양한우 셀프식당 개설을 추진하게 됐다.

최명섭 농업정책과장은 "양양한우 셀프식당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향후 전문점으로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이를 계기로 양양한우의 사육기반과 브랜드화를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축산위생담당 670-2705

"지역밴드와 함께 한 가을여행"

우리군청 Y2Rock · 해오름 26일 낙산해변서 자선음악회 열어

"지역밴드와 함께 가을을 느끼세요."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양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동호인들이 자선음악회를 열어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이채로운 가을추억을 선사했다.

해오름밴드(회장 이종일)와 우리군청 Y2Rock밴드(회장 전부병)는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50분까지 낙산해변 분수대 광장에서 '지역 음악동호인과 함께 하는 가을음악회'를 마련했다.

관내 직장인들로 구성된 해오름밴드는 이날 '나는 너를 좋아', '할아버지와 수박', '회상' 등 우리 귀에 익은 대중가요와 추억의 팝송을 불렀으며, 우리군청 공무원들로 결성된 Y2Rock밴드는 '세계로 가는 기차', '환희',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비와 당신' 등을 열창하며 단풍철 양양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전했다.

이들 밴드는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자선음악회를 통해 낙산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낭만을 전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했다.

특히 자생적으로 결성된 두 밴드는 그동안 갈고 닦은 출중한 호흡을 바탕으로 매년 지역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마을행사나 축제에 빠짐없이 출연, 우리군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전통음식 차별화로 농가소득 기대

전통 떡·전통주·발효음식 경쟁력 인정 국비지원

우리군의 전통음식이 꾸준하게 개발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관리로 농가소득 방안으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국비 5천만원을 포함해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3양양전통음식학교를 열고 양양만의 특색 있는 전통음식개발에 나섰다.

대상자 141명의 신청을 받아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전통음식학교는 일반과정과 단기, 전문과정을 포함한 7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통 떡과 전통주, 발효저장음식 등 경쟁력이 입증된 전통음식이 상품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비교적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일반과정과 제과·제빵, 농산물 가공 등 단기과정, 실제 상품화가 가능한 전문과정 등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통음식학교 참가자들은 마을사업, 테마마을을 운영하고 있거나 농가펜션, 향후 농가 맛 집 및 마을직영 음식점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교육열기도 남다르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에 따라 향후 이들을 지역의 식문화 인재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종류별 연구회 결성을 유도하는 한편 그동안의 역량을 통해 마을직영사업에 참여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발효저장음식, 전통주과정 교육생들은 올해 양양송이축제에 참여해 50종의 발효저장음식과 18종의 전통주 전시, 전통소주 내리기 시연과 함께 시음 및 시식 행사를 열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전통음식 연구회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전통음식개발을 추진하면서 전통 떡과 전통주, 발효저정음식 등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서 지난해 국비 2천만원, 올해는 5천만원을 지원받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서면 장승2리, 송천떡마을, 해담마을, 현북면 상광정리 등이 마을공동 먹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명도를 높이고 있는데다, 현남면 달래촌의 농가 맛 집은 착한업소로 지정될 정도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 670-2338

제9회 강원자활한마당 박람회 성료

지난 17~18일 양양서 개최…자활센터 경쟁력 알려

지난 17~18일까지 우리군에서 개최된 제9회 강원자활한마당 박람회가 자활사업 종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 자립심을 높이며 짜임새 있는 행사로 성료됐다.

강원도지역자활센터협회(회장 전원표)가 이틀간 양양송이조각공원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정상철 군수, 자활사업 종사자 등 1,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도내 자활센터의 역동적인 활동상을 홍보했다.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도 지역자활센터협회와 강원도 광역자활센터, 양양군이 주관한 이번 강원자활한마당 박람회는 자활사업의 역사 및 강원도 자활사업 현황을 알리는 홍보관을 비롯해 자활사업의 가치인 생산, 나눔, 협동이라는 세 가지의 주제로 꾸며진 홍보관, 행복장터의 운영을 통해 자활상품 전시 및 홍보와 시음.시식 코너 운영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돼 호평을 받았다.

또 강원도 광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상품 품평회를 통해 우수 자활생산품을 발굴, 자활생산품의 품질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양양자활센터의 늘푸른환경이 우수자활기업으로 선정돼 강원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우수 실무자 및 우수 공무원, 모범 참여자 표창 등 자활사업 경쟁력 높이기에 기여한 관계자들이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제9회 강원자활한마당은 도내 자활사업 종사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자활사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 및 화합과 연대의식을 함양하며 자활사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상철 군수는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종사자들의 자립이 곧 보편적 사회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지역자활센터협회는 지난 2004년도부터 매년 자활한마당 박람회를 열어 자활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자들의 자활.자립 의욕을 고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戱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마-41. 곱새 치기 뒤풀이

일(一) 일자도 모르는 판 무식이라, 일본놈 사람 치누나.
이(二) 이 처자식 잃음은 학살이어라, 이 과수댁 나 하고 삽시다.
삼(三) 삼남 시적은 연대 풍이라, 삼남(삼나무)에 연이 걸렸네.
사(四) 넉살 좋은 광해연이라, 너 울면 나도 섧구나.
오(五) 오촌댁이면 당숙모라
오라버님 사정에 속옷 벗고 담 넘어간다.
육(六) 육육봉이면 모란봉이라
개미허리 잘룩봉 강 건너 물새봉 남포꾼에 망치 봉이라.
칠(七) 칠악산 갈가마귀는 돌가마귀라, 청룡도 드는 칼이라.
팔(八) 팔도 명산 금강산이라, 금강산 유점사로다.
구(九) 구국궁 다대기면 공구리(공사)판이라, 구룡산 남포꾼이라.
십(十) 장안도감이면 돈 도감이라, 만형제 장백감이라.

그리 멀지 않은 지난날. 우리 선조님 투전목으로 노름놀이 할 때 돈이나 물건을 곱걸고 차례대로 뽑아던지며 끗수따라 흥에 겨워 즉석에서 읊던 노랫말이기도 합니다. 이 투전은 임진왜란 때 明軍에 의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숙종때 역관 장현이 우리 것으로 제작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화투가 들어오기 전까지 온 백성이 즐기던 노름놀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두꺼운 종이의 길이 5치(10~20㎝), 한손가락 너비의 그 안에 동물모양, 문자, 숫자를 표기하여 기름을 먹여 질기도록 한 25, 40, 60, 80장을 한 벌로 했습니다만 보통 40장짜리를 활용했다합니다.

투전은 鬪錢 (돈과 관계) 鬪牋 (놀이제구) 投錢 (놀이장면)으로 표기하고 있겠습니다. 잠깐 연관해 보면 나름대로 어떤 의미부여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한정된 지면이라 설명이 불충분한 점 퍽 송구스럽게 여깁니다.

우리군 아름다운 동행학교 개강

좋은 시어머니 · 멋진 장모되기 프로그램 운영

우리군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 정상철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학교 개강식을 갖고 좋은 시어머니, 멋진 장모되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정상철 군수가 개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수발전소 2013장학금 전달

양양 · 인제지역 300명에 1억5천만원

양양양수발전소(소장 고양병)는 지난 13일 양양에너지월드에서 2013 양양양수발전소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양수발전소는 이날 오전 11시 양양과 인제 등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300명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고병양 소장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더욱 학업에 정진해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양수발전소는 매년 발전소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공헌사업에도 활발하게 동참하고 있다.

손양초교 다목적실 개관

손양초등학교는 지난 8일 오전 11시30분 박천수 부군수, 윤정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내 초등학교 교장, 학부모,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목적실 및 급식실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 다목적실 개관으로 손양초교 학생들은 실내체육 활동과 더불어 최신식 시설에서 급식을 받게 됐다.

정암해변 해안초소 이전된다

우리군, 내년 본격 추진 관광활성화 연계

주민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정암해변의 해안소초가 이전된다.

우리군은 국도 7호선 변 강현면 정암리 해변에 위치한 23사단 58연대 해안대대 정암소초에 대해 지난 8월 이전에 따른 합의각서를 체결한 가운데 이전부지 매입 및 국방부의 기본,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낙산도립공원 및 7번국도, 정암해변과 접해 있는 정암소초는 해변이용과 경관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2009년 9월 강현면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전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군은 그동안 해당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국방부로부터 소초 이전 및 사업방식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군은 이전에 따른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전 대상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기존 건물의 철거 및 기부양여는 신규 건물 준공 이후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소초 이전에는 부지매입비를 포함 9억9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전사업이 완료될 경우 정암해변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국도 7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에게 시원한 바다경관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초 이전으로 동해안에서는 유일한 몽돌해변으로 관광 자원화가 가능한 강현면사무소~설악해변 2㎞구간에 산책로를 연결할 수 있게 돼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명품 '양양송이주' 글로벌 마케팅 준비

(주)해송KNC, 민속도가 인수 다양한 전통주 생산 기대

양양송이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버섯판매업체로 유명한 (주)해송KNC(대표 이미옥)가 명품 양양송이주로 향토주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민속도가를 인수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목표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해송은 지난 14일 그동안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양양민속도가를 인수하고 양양송이주와 퓨전막걸리 등 다양한 향토주 생산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해송은 지난 2008년 11월 창립한 후 양양송이 등 전통버섯을 비롯해 인삼, 더덕, 산양산삼, 약초 등 다양한 특산물을 상품으로 생산, 이-마트 등 전국 150개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향토주 생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버섯판매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이번에 인수한 민속도가를 별도 법인으로 운영, 명품송이주를 비롯해 송이균사 막걸리, 송이동동주 등 버섯이나 인삼, 약초 등을 매개로 한 향토주 브랜드화에 나설 계획이다.

해송은 그동안 축적된 전국 유통망에 향토주 개발 노하우가 풍부한 민속도가의 기술력을 접목해 기존의 향토주에 버섯을 이용한 와인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경쟁력 있는 글로벌 마케팅에도 도전한다는 구상이다.

더욱이 그동안 송이주의 단조로운 향토주 생산 판매로 브랜드화에 걸림돌이 됐으나, 이번에 양양송이 등 다양한 버섯으로 '차마고도'와 '백두대간'이라는 상품을 히트시키며 버섯상품화에 성공한 견실한 중견기업인 해송이 인수하면서 새로운 향토주 상품화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양양송이주는 그동안 국내는 물론 일본, 태국, 호주 등에 수출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며, 지난 2009년에는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의 공식 주류로 선정되는 등 명품주로 각광받고 있다.

강원도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미옥 대표는 "양양송이를 비롯한 다양한 버섯이 전통주와 퓨전막걸리에 이어 와인까지 상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지만 글로벌 마케팅에 걸맞은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연탄구폰 지급

우리군, 377가구 16만9천원 상당

우리군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지원을 받아 겨울철 추위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쿠폰을 지급했다.

군은 동절기 연탄 사용가구의 생활안정 및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역내 저소득층 377가구에 연탄쿠폰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66가구, 차상위계층 97가구,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14가구 등 총 377가구로 지원되는 연탄쿠폰은 16만9,000원 상당이며 지원대상자가 연탄쿠폰의 가격만큼 연탄판매점에 배달을 요청하면 연탄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2013년 제4차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우리군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 22일 10시30분 해군 108전대 해오름관에서 정상철 군수, 최승렬 속초경찰서장, 류춘열 속초해양경찰서장, 이창호 육군제1901부대장 , 선창영 재향군인회장, 고병양 한국수력원자력 양수발전소장, 박기호 39관리대대장, 최효천 한국전력 양양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제4차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굳건한 안보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제1회 양양군이장 한마음 대회 성료

제1회 양양군이장 및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21일 양양군실내체육관에서 정상철 군수, 김일수 군의회 의장, 각 읍 · 면 이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관내 이장들은 모처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화합을 다지며 지역발전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결의했다.

전통시장 차 없는 거리 만든다

우리군,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 개최

우리군이 최근 정비한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변모시켜 보다 편안한 장보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1일 양양농협 3층 회의실에서 정상철 군수, 상인,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완료됨에 따라 군에서 계획 중인 BYC~어시장 골목 차없는 거리 운영, 신토불이 상인 실명제 등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은 현재 장날이면 시장 곳곳에 난립해 있는 난전들을 전통시장 골목 내에 배치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난전의 배치 방법에 대해서는 상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가 앞이 아닌 길 한가운데 배치하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BYC~어시장 골목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 출입구에 차단봉을 설치했는데 상가에 물건을 싣고 내리기가 불편한 것은 물론 차량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막기도 힘들다며 성급한 제도 시행보다는 계도기간을 갖고 캠페인을 통해 자정노력을 해보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건물 내 큰 골목뿐만 아니라 작은 골목에도 난전을 배치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상철 군수는 "최고 전통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된 만큼 상인과 행정이 면밀하게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이용객과 주민 모두에게 편의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가을걷이 끝내고 화합의 장 마련

관내 5개 면민 체육대회 잇따라 개최

올 가을걷이를 끝낸 주민들이 지난 23일 손양면을 시작으로 5개면별 한마음체육대회를 갖고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양양공항구장에서 열린 손양면민체육대회에는 정상철 군수와 각 마을 이장, 주민들이 참석해 체육대회를 비롯해 문화공연과 민속놀이 등 다양한 한마당 잔치를 펼치며 모처럼 바쁜 일상을 접고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지난 25일에는 서면지역이 면민체육대회를 열고 짙어가는 오색단풍과 함께 하나되는 자리를 마련해 단합된 모습을 과시했다.

또 30일에는 강현면이 31일에는 현북면이 면민체육대회를 열고 그동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힌 실력을 전시하는 작품전시 행사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쟁기동 농악공연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였다.

이어 11월 5일에 개최되는 현남면민체육대회에서는 줄다리기, 한궁경기, 짚단멀리던지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목침뺏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경기로 소규모 마을축제의 진가를 뽐냈다.

우리군은 매년 가을걷이를 마치고 나면 5개면이 면별로 체육대회를 열어 주민들과 출향인들까지 참여하는 한마당 잔치로 결속을 다지며 지역발전의 기원하고 있다.

군은 면민체육대회에 맞춰 정상철 군수와 박천수 부군수, 박상민 기획감사실장 등 집행부가 직접 동참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격려에 나섰다.

NH해피하우스사업 추진

농협 양양군지부(지부장 손재형)와 강현농협(조합장 전용우)은 지난 21일 강현면 다문화가정인 전용남 씨 주택에서 NH해피하우스사업을 열고 주택 지붕 교체를 지원키로 했다.

현남면 매호 정화작업 실시

우리군 11월20일까지 생태복원 추진

우리군이 현남면 광진리, 전포매리, 남애리 일원 243,538㎡에 형성된 천연기념물 제229호 백로 왜가리 번식지인 현남면 매호에 대한 정화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여름 장마철 및 집중호우로 석호에 유입된 쓰레기와 석호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갈대의 고사로 석호 수질환경 악화 및 경관훼손, 부영양화 현상 등으로 석호 생태계 교란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매호의 고사된 갈대제거 및 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달간 전체 매호 면적 중 갈대제거가 가능한 41,354㎡ 구역에 대한 갈대제거와 쓰레기 수집을 실시하고 1,860㎡ 구역에 대해 자생식물의 서식을 방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일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41,354㎡에 대해 쓰레기 제거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매호 생태복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실시되고 있어 용역결과를 토대로 매호습지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형복원 및 수체계 정비와 해안생태계의 연결성 확보, 목표종 및 기존생물의 훼손 최소화를 통한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신고 절차

1. 지하수 신고 개요

가. 신고 대상

· 자연적으로 흘러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 · 이용하는 경우가 아닌 모든 지하수

나. 신고 방법

· 지하수개발 · 이용 시공업체를 통한 대행 신고

다. 용도별 허가 · 신고대상의 구분

용 도	구 분	허가, 신고여부
생활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이하	신 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초과	허 가
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이하	신 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초과	허 가
농 · 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직경 50mm)이하	신 고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직경 50mm)초과	허 가

2. 지하수개발 · 이용의 절차

신고(대행업체) → 신고증 교부 → 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 착공 → 준공 신고 → 준공 및 수질검사

3. 불법행위로 지하수를 이용 시 처벌

가. 허가대상 : 지하수법 제37조 벌칙(3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

나. 신고시설 : 지하수법 제39조 과태료(500만원 이하)

4. 관련 부서

담당 부서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처리기간	7일	전화번호	670-2692
근거 법령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양양군 지하수 조례				수수료
					없음

양양읍 공고 제 2013 – 4호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10 월 일

양 양 읍 장

1. 사 업 명 : 『 남경화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양양군 양양읍 거마리 산133번지
3. 도로길이 : 63.0m
4. 도 로 폭 : 4.0m
5. 도로면적 : 542.0㎡
6. 지번별 도로부지조서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유자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필지**		**3,669.0**	**542.0**		
양양읍 거마리	산133	임	3,669.0	542.0	남경화 강명규	도로지정동의

양양읍 공고 제 2013 – 3호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10 월 일

양 양 읍 장

1. 사 업 명 : 『 이원창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104-4번지
3. 도로길이 : 24.3m
4. 도 로 폭 : 6.0m
5. 도로면적 : 117.0㎡
6. 지번별 도로부지조서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유자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필지**		**117.0**	**117.0**		
양양읍 구교리	104-4	대	117.0	117.0	이원준	도로지정동의

2013 슬레이트처리사업 신청

1. 목 적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로서 슬레이트처리 사업을 통한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도모

2. 사업대상

○ 양양군에 소재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3.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4. 신청기간 : 2013. 11. 10일한

5. 신청장소 : 군청(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 670-2183 또는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담당)

6.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전화(소유자 주소 및 연락처, 주택소재지 지번 등)

7. 지원내용

○ 가구당 지원(보조)단가 : 1,545천원(수수료 제외)

※ 지원(보조)단가 이상 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자부담

8. 추진방법

○ 주택소유자로부터 사업을 신청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정한 업체가 현지를 방문하여 지붕면적조사 및 단가 산출후, 소유자와 지붕철거 일자 등 협의 및 철거 추진

단풍철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안내

기초질서 실천으로 우리나라 세계최고

단풍철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속초경찰서장

○ 경찰에서는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관광객 및 주민들의 기초질서 위반행위(오물투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단속기간 : 2013. 10. 20 ~ 11. 20
▶ 단속대상 : 오물투기, 노상방뇨, 무단출입, 음주소란 등
▶ 처벌내용 :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기초질서준수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듭시다

속 초 경 찰 서

2014학년도 1학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22개학과)

- **인문과학대학**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본학과
- **사회과학대학** :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 **자연과학대학** : 농학과, 가정학과, 컴퓨터과학과, 정보통계학과, 환경보건학과, 간호학과
- **교육과학대학** :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 문화교양학과

○ 모집기간 : 2013. 12. 2(월) ~ 2014. 1. 10(금)

○ 지원방법 - 지원서제출 : 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 제출
- 부속서류제출 : 전국 캠퍼스 방문 또는 우편(2014.1.7.도착분) 제출

○ 선발기준 : 출신학교 성적순(별도의 시험 없음)

○ 합격발표 : 2014.1.29(수)

○ 대표전화 : 1577-2853(입학오삼)

☞ 자세한 내용은 대학교 홈페이지(www.knou.ac.kr)를 참고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원지역대학

200-954 강원도 춘천시 방송길51(효자동 591-3)

☎ (033) 240-6613 http://www.knou.ac.kr

파란 하늘에 그리는 하얀 그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을 몇 번 쯤 쳐다보게 될까? 한숨을 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 눈이 시리도록 공활하고 푸른 가을 하늘에도 때론 하얀 구름들이 혹은 검은 구름들이 들어온다.

외출하기 전, 하늘에 가득 낀 검은 구름만 보고 우산을 챙겨 나왔는데 비가 오지 않아 하루종일 우산이 거추장스러웠던 날, '일기예보 좀 진작 확인할 걸…' 하는 후회를 해본 경험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기상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상태, 즉 구름이 낀 정도만 보고 날씨를 예측하기 때문에 생기는 에피소드들이다.

그렇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보인다고 해서 항상 비가 오는 것은 아니다. 구름의 종류에 따라 날씨가 맑을 수도, 흐릴 수도,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다. 구름 관련 속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새털구름은 비 올 징조이다', '양떼구름은 비를 몰고 온다', '뭉게구름은 맑은 날씨다' 등 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러한 속담에서 삶의 과학적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

앞서 두 개의 속담은 저기압이 다가옴에 따라 날씨가 나빠지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저기압 앞쪽의 온난전선이 접근하면서 먼저 상층운이 나타나고, 점차 구름이 두꺼워지고 낮아지면서 중층운, 하층운이 되어 비가 오게 된다는 과학적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또, 뭉게구름은 고기압권에서 날씨가 좋을 때 일사에 의한 대류작용으로 생기는 구름이므로 맑을 징조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위성을 통해 상공에서 구름의 모습 및 이동을 거의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목측 및 운고계, 기상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구름을 관측하기도 한다. 이렇게 얻어진 구름 자료는 날씨를 예보하는 데 기본바탕이 된다. 파란 가을하늘에 그려지는 변화무쌍한 구름은 아마도 내일의 날씨를 그리기 위해 자연이 그려 주는 밑그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속초기상대장 이광주